

장자철학과 동아시아 도시문명

정인하(한양대 건축학부 교수, 동아시아 건축역사와 이론)

오늘날 도시문명은 전환기에 처해 있다. 화석 연료에 의한 기후변화가 인류 미래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활동 등에 많은 제약들이 가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비전에 찬 과거의 도시 프로젝트들은 그 의미가 퇴색되고, 도시문명에 대한 새로운 통찰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이 같은 상황은 전례가 없었던 일로서, 오늘날 다수의 건축과 도시 전문가들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들을 진행하고 있다. 생태도시, 친환경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 탄소중립 도시 등, 환경문제를 다루는 다양한 도시이론들이 쏟아지고 있고, 그렇게 개발된 다양한 기술들은 실제 건물 설계와 도시 개발에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경문제는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다. 더욱이 아부다비의 마스다 시티와 중국 텐진의 에코시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건축가와 도시계획가들이 그 동안 지혜를 모아 건설했던 지속 가능한 도시 모델들조차 현재까지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생태’ 혹은 ‘친환경’이라는 용어 자체가 하나의 새로운 브랜드처럼 사용되는 느낌도 든다. 환경적인 우려와 걱정을 비즈니스적인 차원에서 활용하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현재 많은 생태 도시들이 건설되고 있지만, 여전히 짙은 스모그가 도시인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볼 때 현재의 환경문제는 단순히 기술적이고 방법론적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보다 깊은 차원에서 세계 인식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명확해 보이고, 따라서 그것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성찰이 요구된다.

장자 철학을 통해 동아시아의 도시문명을 논의하려는 이 글의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다. 물론 거대한 현대 문명의 흐름을 과연 장자의 생각만으로 제어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가 드는 것도 사실이다. 현대 기술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서, 인류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준에 도달했다. 많은 미래학자들과 지식인들은 현생 인류가 진화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으며, 그것을 능가하는 새로운 기계들의 출현을 예언하고 있다. 현재 속속 등장하고 있는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은 소위 4차 산업혁명을 촉발시키고 있고, 이런 기술발전은 어떤 방식으로든 인간의 거주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장자 철학은 현대 도시문명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과연 그것이 인간 본성에 적절한지, 인류 생존에 유리한 것인지, 미래 도시는 어디로 향할 것인지, 등등. 비록 뚜렷한 해답이 나오지 않더라도, 그 질문을 통해 우리는 도시계획의 좌표를 새롭게 설정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현재의 방식을 변경시킬 수 있다. 그것이야 말로 도시 인문학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자연, 주체, 근대성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는 근대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이전에도 국지적인 환경 오염이 있었지만, 대부분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수준이었다. 그렇지만 근대 이후 인간과 도시,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다. 서구의 근대 모델이 전지구적 차원으로 수용되면서, 도시는 가장 보편적인 거주방식으로 자리잡았다. 대부분의 선진국가들의 도시화 비율이 70% 이상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자연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지위를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 특히 개항 이후의 동아시아 국가들은 생존을 위해 앞다퉈서 서양의 근대 문물을 받아들였고, 국가를 근대화하기 위해 사활을 걸었다. 동도서기(東道西器)와 중체서용(中體西用), 화혼양재(和魂洋才)와 같은 당시의 슬로건에서 알 수 있듯이, 서양의 물질문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문명개화를 이룩하겠다는 의지는 강렬하고 치열했다. 그 과정에서 침탈과 식민, 그리고 전쟁이라는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며 전통적인 거주 환경은 대부분 파괴되었다. 그럼에도 오늘날 대부분의 동아시아 국가들이 근대화로 나아가는 트랙 위로 올라선 것은 분명해 보인다.

현재 인구 천만 이상을 수용하는 동아시아의 메가 시티들은 그런 근대화의 산물들이다. 본고에서 생태적인 관점에서 장자 철학을 재조명하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장자철학은 여러 논점들 가운데, 근대적 발전모델과는 가장 대척적인 지점에 놓여 있다. 거기서 등장하는 무위, 무용, 무기의 개념들은 인과율에 근거한 이성과 실용주의, 그리고 주체 철학과는 상반된 관점들이다. 더욱이 장자는 근대적인 지성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자연과 환경, 그리고 장소를 바라 보았다. 따라서 생태학적 관점을 가지고 장자철학을 사유하려는 시도는, 근대적 개발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간의 거주방식을 새로운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장자 철학과 관련하여 근대성과 먼저 첨예하게 부딪치는 문제는 바로 자연을 바라보는 주체의 관점이다. 서구의 근대문명은 근본적으로 인간중심주의로부터 출발하여 주체중심의 존재론과 인식체계를 발전시켰다. 데카르트의 '코기토'를 비롯하여, 칸트의 순수이성, 헤겔의 주체성에 이르기까지 서구 철학자들은 주체를 중심으로 이 세계를 표상하고, 그렇게 표상된 세계를 현실 속에 투사시킨다. 이 경우 자연은 타자로서 주체에 의해 재구성되는 존재이다. 근대 도시에서 등장하는 공원들과 녹지대는 그런 관점으로부터 탄생된 자연이다. 이에 비해 장자 철학은 계속해서 주체를 부정하고 제거하고, 자연과의 진정한 합일을 추구했다(天地與我並生, 而萬物與我爲一).

자연을 통해 장자가 궁극적으로 꿈꾸었던 것은 조화로움이다. 과거 동아시아에서 자연(自然)은 글자 그대로 '스스로 그러한' 것이었다. 자연은 스스로 생성되고 변화해 나가며(萬物將自化) 스스로 조화롭게 된다. 인간의 개입 없이도 땅과 장소들마저 스스로 복원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노자는 도덕경에서 “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 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人法地、地法天、天法道、道法自然) 인간은그런자연의수많은양태들가운데하나에불과하다. 이 때문에 장자는 주체를 부정하고(無己), 주객을 구분하지 않는 합일된 세계를 상상하고

있다. 이를 두고 장자는 “만약 천지의 올바름을 타고 자연의 변화를 부리면서 무궁한 곳에서 논다면, 그것은 또 어디 기대는 것이 있겠는가! 그런 까닭에 말하기를, 지극한 사람은 자기가 없으며, 신인은 공적이 없고, 성인은 이름이 없다 (若夫乘天地之正, 而御六氣之辯, 遊無窮者, 彼且惡乎待哉! 故曰: 至人無己, 神人無功, 聖人無名).

만물생화와 무용(無用)의 쓰임

장자의 이런 생각은 현대도시들에서 거의 반영되어 있지 않다. 오직 효율성과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생각만이 도시공간을 지배하고 있다. 앙리 르페브르가 날카롭게 지적했듯이, 현대 자본주의는 모든 이에게 소비의 욕망을 부추기면서 시장의 확대를 꾀하고 있다. 투자-생산-소비의 사이클이 또다시 재투자로 이어지는, 거대한 자본의 순환과정이 지금과 같은 도시공간을 만들어내는 주요 메커니즘이다. 특히 인구밀도가 높은 동아시아에서, 도시공간은 개발을 통해 자산을 확대 재생산하는 주요 방편이 되었다. 이 때문에 이익을 내는 한, 대도시의 밀도는 계속 높아지고, 그 경계는 계속 확장된다. 자연은 투자에 이익이 되는 한 유지되거나, 부분적으로 도시공간에 삽입될 뿐이다.

오늘날 한국에서 건설되는 수많은 신도시들은 그런 사실을 정확하게 입증하고 있다. 수도권 5대 신도시를 비롯해서, 최근의 세종시와 송도시에 이르기까지 여러 신도시들이 엄청난 속도로 건설되었다. 도시계획가들은 인간적인 도시와 생태적인 도시를 표방하지만, 최대한의 이익을 만들어내려는 개발업자들과 건설회사, 그리고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는 관료들에 의해 그런 의도는 거의 좌절되었다. 이에 따라 인구 10만명을 겨우 넘는 도시를 건설하면서, 30층 이상의 아파트 단지들이 건설되고 있는데, 그것은 좁은 땅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뽑아내려는 의도밖에 볼 수 없다. 작은 소도시에서 모든 도로망은 거대도시의 기준에 맞춰져 설계되었다. 이런 점에서 도시를 바라보는 우리의 의식과 법과 제도는 여전히 근대적 모델에 맞춰져 있는 것이다.

한국의 신도시들은 보행권을 강조하여 도로 폭을 줄이려는 유럽의 친환경적인 도시들과는 정반대의 방식으로 가고 있다. 유럽의 대표적인 친환경 도시인 말뫼나 프라이부르그를 보면, 저층의 건물들이 자연친화적인 환경 속에 공존한다. 차량의 도심진입을 막는 대신, 자전거 타기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거대 도시에서는 불가능한 생활 패턴을 통해 이 도시들은 완전한 에너지 자립을 이룩하고 있다. 이것은 주민들과 지방정부 사이의 자발적인 합의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한국의 신도시들은 그런 의사결정의 메커니즘의 구조를 갖지 않는다. 그리고 정해진 시기에 건설목표를 채우려는 관료들의 생각을 충족시키기 위해, 도시 생활의 다양성과 자연친화적인 접근은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리 좋은 친환경 정책이나 기술을 사용한다고 해도 결코 극복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오늘날 한국의 도시환경은 땅과 주거의 개발 이익에 의해 지배되고 있고, 그래서 장자가 가졌던 자연의 의미는 완전히 전도되어 있다. 장자가 오늘날과 같은 이런 상황을 마주했다면, 아마 그는 강하게 저항했을 것이다. 그에 따르면, “공로와 이익과 기

교 같은 것은 반드시 사람의 마음에서 잊혀져야 한다고 했다(功利機巧, 必忘夫人心). 오늘날 건축의 공공성이 강조되고, 건축과 조경 그리고 도시를 통합하여 하나의 풍경으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도시 공간의 상업화 대한 저항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은 동아시아의 전통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한다.

개발이익과 마찬가지로 효율성이 현대도시의 중요한 계획원칙인 것은 명확해 보인다. 포디즘은 20세기 초에 노동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과학적인 경영 방식인데, 도시 공간 역시 그것에 맞춰 변모했다. 근대건축가들은 대량 생산을 위해 도시전체를 부분들로 분리하고 계량화하여, 그들을 효율성의 관점에서 재결합했다. 이런 생각은 곧 엄격한 용도지역제도 전환되었고, 근대 이후 건축과 도시의 학문은 모두 기능주의에 매몰되었다. 그렇지만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도시 모델은 자발적으로 진화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크리스토퍼 알렉산더가 ‘도시는 나무가 아니다’라는 글을 통해 밝힌 것처럼, 근대적 이념에 의해 만들어진 많은 신도시들은 그 기능과 효용성으로 인해 오히려 더욱 황폐해졌다. 거기서 자연은 인간의 편의를 위해 개발되고 변형되었고, 더 많은 물질적 풍요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 장자의 표현에 의하면, “물건에 의해 자기를 잃게 되고, 세속 때문에 본성을 잃는 것이다”(喪己於物, 失性於俗者).

또한 근대 도시계획 상에 설정된 기능과 효율성은 장자가 이야기한 ‘유용한 쓰임(有用之用)’만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현대 도시는 계속해서 팽창하면서 수많은 법과 규제를 낳았다. 인구 천만 이상이 사는 도시공간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각각의 필지들에는 정확한 용도가 설정되어 있고, 그 크기와 높이가 3차원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런 세세한 항목들이 정해지지 않을 경우, 도시의 질서를 확립하기 힘들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도시공간이 가지는 복합적 의미는 사라지고, 오직 현재의 쓰임새만이 강조되었다. 근대적 모델에 바탕을 둔 도시들에서 나타나는 획일적인 측면은 바로 여기서 출발한다. 오늘날 장자가 이런 모습을 본다면, 엄격한 용도지역제의 사용을 명백히 반대하고, 근대적 모델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대안을 제시했을 것이다. 그것은 장자의 다음과 같은 구절에서 잘 드러난다. “사람들은 모두 쓸데 있는 것의 쓰임을 알지만, 쓸데없는 것의 쓰임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人皆知有用之用而莫知無用之用也).” 여기서 ‘무용지용’이야말로 대단히 역설적인 말이지만, 장자는 현대 도시계획가들에게 새로운 차원의 깨달음을 가져다 준다.

근대 도시계획에서 나타난 중요한 문제점은, 바로 계획 단계에서 도시적 변화를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래의 변화에 대한 적응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도시건설을 위해 수립된 마스터 플랜들이 당시의 상황에서는 이상적인 것들이었지만, 그 후로 수없이 찾아오는 변화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다. 도시인구의 증감과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도시공간의 사용방식은 달라진다. 그렇지만 문제는 한 시점에 고정된 도시계획은 새로운 변화에 제대로 적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근대 도시계획안들은 수립될 당시에는 유토피안적인 생각을 반영하지만, 이 후로 도시의 자발적인 진화

과정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했다. 도시를 하나의 고정된 시점에서 계획할 경우 갖는 한계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장자가 비판한 ‘유용한 쓰임’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된다. 오래된 역사도시들에서 이 점은 명확해 보인다. 사람들의 생존방식이나 집합이 새로워지면서, 그것을 담는 그릇은 필연적으로 변경될 수밖에 없는데, 근대 건축가들은 그런 변화보다는 고정된 이상성을 추구했던 것이다. 장자 철학은 근본적으로 플라토닉한 이상성과는 거리가 멀다. 그렇지만 자연의 운행이라는 근본은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자는 “사물의 변화를 따르되, 그의 근본을 지키는(命物之化 而守其宗也)”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고요하고 한결같이 변하지 않으며, 담담히 무위하고, 움직이면 자연의 행을 따른다고 했다.

도시에 대한 새로운 시선

장자는 무엇보다 자연을 살아 있는 유기체로 간주하고, 그것의 도리를 따르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했다. 이 때문에 그의 생각을 따를 경우, 도시를 건설하기에 앞서, 그것을 담아낼 적절한 장소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자연을 인간의 삶 속에 최대한 끌어들이, 자족적인 거주 환경을 만들어내야 한다. 장자 철학은 그런 점에서 많은 교훈을 가져다준다. 근대화 이후 인간들의 무분별한 개발에 의해 많은 것들이 파괴되어 나갔지만, 자연은 여전히 복원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그 힘을 복돋으려는 방향으로 도시계획과 정책을 수행해 나간다면, 환경문제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가리라고 본다. 이 점은 첨단기술을 통해 거대 도시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과는 다르다. 부분적으로 거기서 나온 지식들을 활용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자연의 복원력을 신뢰하고 그것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 글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이다.